

# 보도자료

## 노나메기

(재)백기완노나메기재단

주 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9길 27

전 화 : 02-762-0017

누리집 : baekgiwan.org

문의(담당) 양기환(대변인)

010-5307-3595

전자편지 : bbaekgiwan@gmail.com

**제목 :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미국의 눈으로 보도하지 마라!**

1. 귀 언론사와 관계자님께 고맙습니다.
2.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광기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주권국의 대통령을 납치 감금하고,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15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야만적인 만행이 인류를 충격과 공포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이런 때일수록 올바른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우리 언론은 미국적 가치와 시선으로 광란의 전쟁을 두둔하며, 무비판적으로 학살의 만행을 안방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참담합니다.
4.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중단하라! 미국의 눈으로 보도하지 마라!”라는 간곡한 호소를 담아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미친 망나니의 칼춤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일말의 노력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범이 될 것입니다.
5.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원로들의 전쟁을 멈추라는 호소를 담은 입장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시민사회원으로 긴급 기자회견 -

- 일시 : 2026년 3월 8일(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 주최 : 백기완노나메기재단
- 문의 : 010-5307-3595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순서
  - 취지 및 경과보고
  - 여는 말씀
  - 규탄의 말
  - 참석자 자기소개 및 한마디
  - 호소문 읽기

※ 호소문\_미대사관 전달

##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미국의 눈으로 보도하지 마라!

- 시민사회원으로 기자회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학살을 규탄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조차 없이 이란을 침공하여 연일 미사일과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마드 파푸르 등 이란 정부 핵심 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란이나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하여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폭격하였다.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상의 봉쇄상태에 놓이면서 유가가 치솟고 세계와 한국의 경제 또한 요동치고 있다.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으며 이번 침공은 전혀 명분이 없다.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이는 미국이 2025년 6월에 이란을 침공하여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고 오만의 중재로 열린 핵협상 또한 거의 타결 직전에 있었다. 그 반대로 이번 침공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침략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이란 국민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 또한 이제 전쟁의 목표가 이란에 친미 괴뢰정권을 세우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란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음을 규정하며,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결국 미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전 세계의 경제 혼란

을 초래하는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폭거다. 미국은 이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이를 파괴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 자본주의가 외부를 착취하고 수탈해서만 유지되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기에 끊임없이 제3세계를 침공하거나 정권 전복 공작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란으로 국한하더라도, 1953년에 당시 민선으로 당선되어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실행하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비밀정보부(MI6)가 쿠데타 공작을 하여 그를 축출하고 친서방 군주인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내세운 바 있다. 기존의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와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이러한 틀 자체를 깨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과 힘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와 막가파식 수탈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 정부 또한 시민의 주권과 자유를 탄압하며 미국에 빌미를 준 것을 성찰하고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외부 세력이나 이란의 지도부가 아니라 오로지 이란 민중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도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학살당하고 있다.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하여 165명이 숨지고 96명이 다쳤다. 외신에 따르면, 3월 6일까지 최소 1,33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죽음 앞에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군사적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보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단순한 오판도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의한 민간인 사망도 많다. 미국은 민간인 희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작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지도자와 군시설의 적시 타격에만 혈안이 되어 인명을 무시한 징후가 보인다. 이에 우리는 이를 학살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참담하게도 우리 언론은 침략자의 시선으로 이 전쟁과 참상을 알리고 있다. 한국 언론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을뿐더러 미국 정부의 발표나 언론 보도, 통신사 서비스를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날 것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학살의 만행을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전쟁의 참상을 마치 화려한 그래픽을 곁들인 게임처럼 안방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전쟁에서 가장 왜곡되는 것은 진실이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이 진실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 비극적인 죽음조차 시청률과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하는 언론의 천박함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미국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적 시각으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 또한 친미 일변도의 짝사랑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 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공습 당일에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음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성명을 냈다. 한국 외교부가 친미 종속의 자세를 지속시켜 온 것은 어제나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북한에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실질적으로 이라크와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실행에 나선 것을 본 상황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트럼프가 오판과 광기에 젖어 북한 침공을 단행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이재명 정부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만 바꾸면 이는 가능하다. 한국은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력과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굴욕적인 친미 종속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 노선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국제 질서는 파괴되고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제국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다. 인류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도한 침략과 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비명이 온 세계의 양심 있는 이들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살육에 헤아릴 수 없는 비탄에 잠기고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망나니의 칼춤에 분노하면서 엄중히 규탄한다.

1. 트럼프 정부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와 광기의 전쟁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바라는 지구촌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2. 한국 언론은 미국의 시각을 복사하는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전쟁의 비극을 게임 중계하듯 보도하지 말라!
3. 이재명 정부는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미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외교로 4대 강국의 균형자 역할을 하라!

2026년 3월 8일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원으로 일동

## 시민사회일로 연명자 명단(95인)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강형철(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광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낙기(통일광장),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노동대학 이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시인), 김준권(그림꾼), 김중배(전 MBC 사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판수(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이사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민정기(그림꾼),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불똥(그림꾼),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용일(변호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박흥순(그림꾼), 방동규(백기완재단 고문),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백원담(성공회대 석좌교수),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신학철(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심광현(전 한예종 교수), 심정수(그림꾼), 양규현(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유영표(전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이기연(질경이 우리옷 대표), 이대로(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덕우(변호사),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상임 이사장), 이시백(소설가), 이시영(시인), 이해동(목사), 임동확(시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장경호(그림꾼),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영달(민청학련 동지회), 장희익(서울대 명예교수), 정동익(동아투위), 정연순(변호사), 정일옥(전 칼라 tv),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전 연세대 교수), 정현찬(전 가톨릭농민회 의장), 정희성(시인), 조돈문(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순덕(민가협), 조현철(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이사장),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재환(그림꾼),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한도숙(시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함세웅(신부), 현상윤(전 새언론포럼 회장), 홍선웅(그림꾼), 황지익(박창수 열사 아버지) / (원로\_김해섭 안학섭 임방규 양희철 오병철 전창일 권오창 이규재) / (사월혁명희\_박홍섭 김승균 김용삼 림구호 이용위 정혜열 조희환 한찬욱)

※ 긴급히 조직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